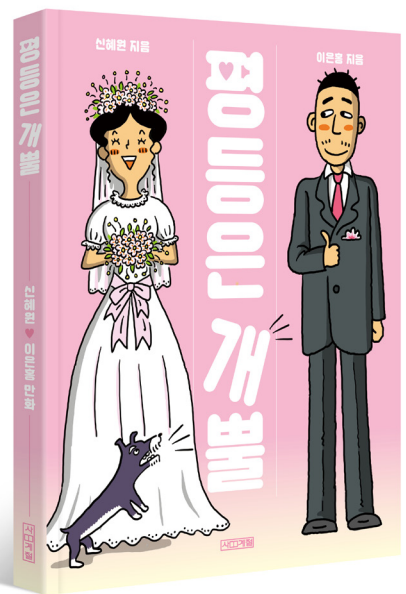

평등은 개별

작성 안산토론교육연구회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등은 개별
신혜원, 이은홍 지음



■ 주제어 #양성평등 #결혼제도 #성 역할 #페미니즘 #고정관념 #차별 극복

■ 분류 문학 > 한국문학 > 만화 > 사회과학 > 젠더 > 성평등

도서 소개

로맨스 드라마는 대개 사랑하는 이들이 결혼하면서 끝난다. 사랑이 결혼으로 귀결되는 이 클리셰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은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대한 더 큰 물음표의 시작이다. 이 책을 쓴 그림책 작가 신혜원과 만화가 이은홍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인 부부관계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부부간의 평등은 가능한가?'라고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진다.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이 물음은, 비단 이들 부부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평등과 존중, 배려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모두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하다. 진보적인 부모님 덕에 비교적 성차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라난 여자, 사내아이로서의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남자가 만나 결혼을 했다. 여자는 정의롭고 인간 평등을 실천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고, 남자는 자신을 믿고 이해해주는 현모양처를 만났다고 생각했으나, 동상이몽이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지나가자 장애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부부는 일상의 갈등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자는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과 달리 친정 부모에게는 '장인, 장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상황이 마뜩찮고, 남자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열 달 동안 배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낳았는데도 부성주의 원칙에 입각한 법에 따라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른다. 또 여자도 가사와 육아는 처음인데 함께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라고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낀다. 육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엄마의 몫이지만 아이의 이름에서는 엄마가 지워지는 현실, 그 앞에서 여자는 서럽지만 남자는 담담하다.

출발점은 부부의 일상이지만 이야기는 혜원과 은홍의 어린 시절, 부부를 둘러싼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더 폭넓게 전개된다. 어릴 적, 남자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해도 혼내기는커녕 '좋아해서 그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생님의 캐릭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평등한 가사노동을 지향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더라도 남자가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지만, 여자의 노력은 조명되지 않거나 '이기적이고 드센 여자'라며 폄하되기 일쑤다. 여기에 사위나 아들이 설거지하면 미안해하거나 못마땅해하는 부모님들까지. '평등은 개뿔!'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부는 이제 평등이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피부로 깨닫는다. 이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 사이에 평등과 존중은 필수다. 평등한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문장은 이 책을 자라나는 세대와 함께 읽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해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요시이 히로아키는 '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상에 내재된 '상식', 즉 당연하다고 여겨온 일들을 의심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그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

젠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합리적 토론은 부재하고 감정적인 공격과 비난이 난무한다.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가 겹쳐져서 오해와 편견을 양산한다. 좀 더 합리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젠더 갈등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파악한다.
2. 평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평등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다.
3. 창의적인 문학적 표현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준비	차이와 차별	1차시
독서	결혼에 대한 생각	2차시
	성인지 감수성 UP	3차시
	남녀 불평등 상황 분석	4차시
	남녀 갈등 상황에서의 입장문 작성	5차시
독서 후	가치 수직선 토론으로 남·여 차별 이해하기	6차시
	에르디아 토론으로 작품 깊이 있게 이해하기	7~8차시
	글쓰기 활동	9차시
	평등 선언문 작성하기	10차시

1. 다음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차이와 차별의 이야기 : https://youtu.be/eK_v8qSBB0w]

2.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봅시다.

일반적 개념 파악하기	'차이'의 의미 :
	'차별'의 의미 :
구체적 개념 파악하기	'차이'의 의미 :
	'차별'의 의미 :
주변에서 적절한 사례 찾기	'성차이'의 예 ①
	'성차이'의 예 ②
	'성차별'의 예 ①
	'성차별'의 예 ②

■ 78쪽까지 읽고 활동하기



1. 결혼에 대한 생각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자.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 나에게 행복한 결혼이란, _____

2.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길 바라나요?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3차시

성인지 감수성 UP

■ 118쪽까지 읽고 활동하기

1.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성인지 감수성이란 <https://youtu.be/41u3cnpLpVQ> (처음부터 2.08초까지)
- 성인지 감수성:

2. 다음 영상을 보고 유사한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이야기해 봅시다.

- 이거 나만 불편해? https://youtu.be/GZEm_TGb8hg
- 유사 경험이나 주변 사례

4차시

남녀 불평등 상황 분석

■ 160쪽까지 읽고 활동하기

1. 부부·가족에서의 남녀 불평등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한 분석하기

- 부부 불평등, 가족 불평등(도서 119~160쪽 참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상 깊은 남녀 불평등 상황을 2가지 제시하시오.
- 갈등 상황에서의 대립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작성하시오.

	상황 설명	선택 이유	대립되는 가치	성찰 질문
남녀 불평등 상황(1)				
남녀 불평등 상황(2)				

- 2. 위와 같은 핵심 가치의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또는 문제를 검색하여, 그 상황에서의 환경적인 요인, 개인별 입장 등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5차시

남녀 갈등 상황에서의 입장문 작성

■ 197쪽까지 읽고 활동하기

1. 갈등 상황 입장문 작성하기

- 4차시에서 작성한 남녀 불평등 상황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남녀의 입장문을 작성하시오.
- 남녀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핵심가치, 상대방에게 바라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오.

▶ 남성의 입장

▶ 여성의 입장

6차시

독서 후 활동 - 가치수직선 토론으로 남·여 차별 이해하기

〈가치수직선 토론〉 설명

- 가치수직선 토론은 가치에 대한 개인별 의사표시를 수직선 위에 함으로써 가치판단 경험을 하고 그것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토론입니다.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에 대해 좀 더 숙고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재미있는 토론이며, 가치수직선 위의 눈금이 5개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내 의견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가치 판단이 필요한 상황 제시
2. 가치에 대한 개인별 의사 결정
3. 의사 결정 이유를 생각하여 메모지에 작성 후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4. 수직선 위에 나타낸 상태를 설명
5. 토론 후 새로운 위치 정하기

1. <보기>의 단어들을 읽고 가치수직선에 메모지를 붙이고, 모둠원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보기]

여(女) - 여기자, 여교수, 여류 시인, 여의사, 여군, 여경, 여류 화가, 여배우, 여류 소설가, 여류 바둑기사

어색하고 듣기 불편하다 - 어색하지만 듣기 불편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익숙하지만 듣기 불편하다 - 익숙하고 듣기 불편하지 않다

2. <보기>와 같은 말을 들어본 경험에 관하여 각자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한남충, 남자답게,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맘충, 슈퍼맘, 여자는 꾸며야지!,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김여사, 여자가 감히, 여자답게, 알파걸, 워킹맘, 된장녀, 독한 년, 창녀, 롤리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여자와 복어는 때려야 부드러워진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과부가 된다, 커리어우먼, 국민 여동생, 여자는 애교, 약한 여자, 드센 여자, 김치녀, 여자는 눈물이 많다, 여자가 유식하면 팔자가 세다.

3. 모둠원과 이야기 한 후, 생각이 달라졌다면 가치수직선에 붙인 메모지를 옮기고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4. 성차별 언어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모둠원과 상의하여 성평등 언어로 바꾸어 봅시다.



5. 오늘 학습한 내용에 관한 소감을 한 마디씩 이야기 해 봅시다.

1. 보석맵 활동을 하며 친구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에르디아 토론〉 방법 설명

▶ 에르디아 토론

1. 관계 맺기 - 토론의 참여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활동. 자기소개, 아이스브레이킹, 토론을 통해 기대하는 바, 우리만의 토론 규칙 등을 함께 정하고 나눈다. 단순히 친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토론의 주제나 방향과도 연결이 될 때 보다 의미가 있다.
2. 느낌 말하기 - 토론 주제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단계.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범위는 제한이 없이 단어나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을 충분히 공감하도록 한다.
3. 키워드로 표현하기 - 토론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활동. 느낌 말하기가 주제에 대해 가볍게 그리고 넓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키워드로 표현하기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깊게 탐색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키워드와 다른 사람들의 키워드를 비교하며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
4. 질문 만들기 - 토론 주제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활동. 학생들이 토론할 질문, 생각거리가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권을 넘긴다. 궁금해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 등을 질문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생각 근육을 단련시켜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5. 쓰면서 토론하기 -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토론하는 것이다. 붙임 종이를 이용하여 말하기 전에 기록한 후 발표하거나,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마음껏 표현한 뒤 의견을 나눈다. 쓰면서 토론하기는 생각을 종이에 쓰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순발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다.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토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6. 성찰하기 - 많은 활동과 토론을 마친 후 배운 점은 무엇인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실천할 점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단계이다.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은 에르디아 토론의 꽃이다.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 에르디아 토론 진행 순서

활동 단계	활동 내용	준비
1. 느낌 나누기	① 책을 읽은 후 프리즘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 편하게 표현하기 - 카드를 고르며 메모지에 간단하게 느낌을 씀. ② 모둠 안에서 이꿈이부터 이야기함.	- 프리즘 카드 - 포스트잇

활동 단계	활동 내용	준비
2. 키워드 찾기	①메모지에 책을 읽고 난 후 떠오르는 단어, 가치, 저자의 메시지 등을 단어로 떠올리고 2개 적기 ②모둠원과 돌아가며 이유와 함께 이야기하기 *가능한 내용과 연관된 추상명사,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찾도록 안내	- 포스트잇
3. 질문 만들기 & 쓰면서 토론하기	①개별 질문 5개씩 만들기 *모둠에서 나온 키워드와 관련하여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 ②만든 질문 중 가장 좋은 질문에 별(★) 표시하기 ③희망 학생의 질문을 교사가 칠판에 적기 ④나온 질문들 중 우선순위를 학생들이 정하고 질문에 관하여 모둠원끼리 자유롭게 대답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 활동지 또는 전지
4. 들 가고 들 남기	①모둠원 중 호스트 2명이 남고 나머지 구성원은 오른쪽 모둠으로 이동. 각 모둠에서 질문에 대해 나누었던 답에 관하여 호스트가 옆 모둠 구성원에게 설명. ②본래 모둠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복 ③이동했던 구성원 2명은 각 모둠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호스트에게 공유하기.	- 활동지 또는 전지
5. 성찰하기	나는 어떤 남편(아내)이 되고 싶은지 선언문을 만들어 학급 학생들 앞에서 공유하기	- 활동지

▶ 개인 질문 만들기

	내가 만든 질문	★
1		
2		
3		
4		
5		

아래 한 편의 시와 사실을 읽고, 부부 관계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해결해야 할 세 가지에 관해 서술하시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 아침 햇살 속에서 줄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 죽음의 잠을 향하여 /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찾아봤다. 나와 북한 남자들은 모두 '꼰대'였다
 [아무튼, 주말- 평양남자 태영호의 서울 탐구생활]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라 해서 일부러 영화관을 찾아갔다. 북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김지영을 짓누르는 한국의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려다 고장 나는 김지영의 심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미니즘이 중요 사안이 된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얘기가 '꼰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부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한 사람들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보였다.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간다든지 세탁기로 아이 옷을 빼는 모습, 자가용을 타고 시집으로 가는 장면 등을 보면 저렇게 편리하게 사는데 김지영이 왜 힘들어하는 걸까, 생각할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남편의 육아휴직, 정신과 의사와 상담 등은 북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다. 반면 시집에서 식모 처럼 부엌 한구석에서 일만 하다 돌아오는 모습,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 없고 아들 장래만을 생각하는 모습은 북한과 똑같이 공감할 듯하다.

영화를 보면서 북한에서 나와 아내가 겪은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는 북한에서 20여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시집살이까지 했다. 북한에서 2성 장군의 둘째 딸로 편안하게 살다가 받아들인 나한테 시집과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평양시 모란봉 구역의 3칸짜리 작은 집에서 동생 부부까지 합쳐 8명이 살았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이 중단되자 집안에서 쌀을 구해오는 사람은 의무성에 다니던 나와 무역성에 다니던 아내뿐이었다. 두 명이 벌여 가족을 먹여 살렸다. 얼마 안 되는 쌀로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 점심도 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강냉이 막국수로 끼니를 때웠다. 퇴근할 땐 다음 날 반찬감을 구하려고 친정이나 언니 집, 장마당을 돌아다녔다. 명절이면 아침부터 정신없이 음식을 해 나르다가 저녁에야 친정에 가 쓰러졌다.

김일성은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면서 남자들처럼 직장에 나가 똑같이 일하라고 했다. 법률상 산전휴가 60일, 산후휴가 180일인데 평균 150일 정도 휴가를 쓴다. 육아휴직제가 없어 휴가가 끝나자마자 애를 업고 출근해 직장 근처 탁아소에 맡긴다. 집사람도 시집살이하면서 애를 업고 직장에 다녀야 했다. 저녁에 지쳐 쓰러진 아내의 찬 손을 잡고 조만간 해외 공관에 데리고 나가 호강시켜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달랬다. 다음 해, 다음 해 하면서 아내를 얻었는데 결혼 8년 만인 1996년에야 덴마크 주재 북한 공관에 파견됐다.

우리 부부는 아이 둘을 낳기로 약속했다. 북한 외교관은 자녀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은 인질로 본국에 두고 해외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둘째는 해외에 나가서 낳기로 계획했다. 규정상 외교관이 해외에서 애를 낳지 못하게 돼 있어 임신해도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주지 않는다. 당시 내 한 달 월급이 500달러였는데 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병원 접수비부터 70달러였다. 임신 기간 병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예 포기했다.

덴마크 병원에서 아내가 출산한 날, 의사들이 아내의 진료기록이 전혀 없다며 놀라워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매정하게 아내를 병원에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병원 복도 의자에 무기력하게 앉아 아무런 대꾸도 못 했다.

아내에겐 미안한 것투성이지만 유일하게 자부하는 것이 북한 사람치고 집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선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면 못난 놈 취급한다. 나는 동네 시선을 개의치 않고 아침이면 출근길에 동네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렸다.

수십년 동안 북한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의 고달픈 삶의 패턴이 한국에 와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면서 아내에게 같이 운동하자고 하지만 싫다고 한다. 북한에 있을 때처럼 매일 아침 나의 양복과 와이셔츠를 다리고 도시락을 준비한다.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아내가 여생을 자기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019년 12월 11일]